

청소년 연구와 청소년상(像)*

전상진**

초 록

이 연구는 청소년기를 자연적이며 불변적인 사회적 사실이 아니라, 문화적이며 사회적인 조건의 변화에 따라 생성되는 사회적 구성물로 간주한다. 이 사회적 구성물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사회사와 이에 대한 담론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관찰해야한다. 이 연구는 전체 과정의 한 부분, 즉 성장의 담론이 청소년기의 사회적 구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제에 주목한다. 성장 담론과 청소년기는 매우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결의 중요한 고리로 청소년상(像) 개념을 제시한다. 청소년상은 청소년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정의(definition)다. 이것이 어떻게 정의되는냐는 청소년기의 사회적 구성, 따라서 청소년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청소년상은 한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 교육적 청소년상은 역사적 발달과정(성장의 사회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화한다. 그리고 각 사회영역별로 주도적인 청소년상이 있다. 청소년 연구자들은 각 사회영역에서 지배적인 청소년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청소년 연구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청소년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상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즉 그들의 기본적인 사고틀을 형성하는 기초개념들이 생성된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맥락을 무시하면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규범과 인식에 과학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 청소년상, 사회적 구성, 성찰적 청소년 연구

* 이 연구는 서강대학교 교내 연구 지원으로 작성되었다. 도움을 주신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논문에서 미처 수용할 수 없었던 유용한 지적 사항들은 추후 연구로 보완할 것이다.

**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I. 들어가며

현재 우리 성인이 청소년과 청소년기¹⁾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무엇이 핵심문제이고, 그 의미를 명백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들이 청소년과 청소년기를 자연적 ‘사실’, 그리고 불변의 ‘사실’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청소년은 존재론적 실체(ontological substance)이며, 청소년기는 모든 인간이 거쳐 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이 밝힌 바와 같이²⁾ 이들은 문화권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인식되며, 역사적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청소년들의 ‘현재적’ 삶의 조건과 제도(청소년기)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적 질서의 세 축, 즉 과거와 현재의 경험,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인간 발달의 단계상 유아기와 성년기 사이에 위치하는 발달 단계”로 이해된다(한준상, 1999: 10). 하지만 이 발달단계에 대한 인식은 성인의 과거와 연결된다. 청소년기는 모든 성인에게 친숙한데, 이유는 그들 스스로 그 시기를 거쳤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기는 ‘과거청소년기’다. 청소년기의 의미는 과거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것의 상실에 대한 아쉬움과 회한을 동반하면서 생성된다. 교육자, 부모, 그리고 성인은 언제나 두 종류의 청소년들, 즉 지금 내 앞에 실제로 ‘있는’ 청소년과 내 안의 청소년을 상대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또한 ‘미래청소년기’다. 청소년기는 “한 인간에게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커가는 병(病)’과 같은 성장기다(한준상, 1999: 10). 이 성장기는 미래, 즉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인, 자신을 책임지는 성인으로 제대로 진입”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하는 시기다(한준상, 1999: 10).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기는 사회의 존속과 관계된다. 미래청소년기의 관점이 등장했던 시기, 특히 진보와 완전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신념이 지배적인 시기에 성장세대는 현재적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힘으로 간주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1) 이 연구는 ‘청소년’과 ‘청소년기’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청소년기’는 삶의 조건과 제도적 맥락을 의미하며, ‘청소년’은 ‘청소년기’의 제도적 맥락에서 행위자(agency)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2) 이에 대해서는 이 연구의 II장을 참조 바람.

기는 ‘현재청소년기’다. 먼저 현재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상황은 현재의 문화·사회적인 성장조건이다. 동시에 청소년기는 현재 지배적인 이념, 즉 청소년은 무엇이여야만 한다는 당위적 관념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과 청소년기는 세 가지 유형의 경험과 관념, 그리고 표상의 혼합 속에서 생성된다. 즉 청소년기는 현재적 과거와 미래적 현재, 그리고 현재적 미래의 혼합이며, 그 결과인 경험과 이념, 그리고 관념이 현재적 조건과 인간, 즉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청소년기 형성의 두 수준을 구분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수준과 이념적 수준이다. 청소년기에 대한 우리의 이념은 실제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인식과 해석을 조정한다. 성인중심적 사회는 과거청소년기의 경험 속에서, 미래청소년을 기대치로 놓고, 현재 청소년들을 평가하고, 당위적 측면에서 제어하고자 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삶은 본인들의 예상은 물론이고, 성인의 기대와 희망과는 다른 궤적을 따라 변화한다. 요컨대 청소년기는 청소년 성장의 사회사와 그것에 대한 사회적 이념사(사회적 담론의 역사)가 결합하여 만드는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기를 자연적이며 불변적인 사회적 사실이 아니라, 문화적이며 사회적인 조건의 변화에 따라 생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구성물의 형성 과정을 지식사회학적인 접근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본문의 II 장). 이 사회적 구성물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적절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장의 사회사와 이념사를 통합적으로 관찰해야한다. 물론 이 과제는 이 연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거대한 기획이다. 대신에 이 연구는 성장의 담론(사)이 청소년기의 사회적 구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성장 담론과 청소년기는 매우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결의 중요한 고리로 청소년상(像)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III장). 청소년상은 간단히 말해서 청소년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정의(definition)다. 이것이 어떻게 정의되는냐는 청소년기의 사회적 구성, 따라서 청소년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청소년 담론에서 나타나는 상징적 투쟁은 결국, 지배적인 정의권력(Definitions-macht)을 둘러싼 투쟁이다(이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상술). 청소년상은 한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 교육적 청소년상은 역사적 발달과정(성장의 사회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화한다(IV장). 그리고 각 사회영역에서 주도적인

청소년상은 차이가 있다(V장). 이런 이유로 우리는 청소년과 청소년기에 대한 다양하고, 서로 모순적인 사회적 정의들과 대면하게 된다. 청소년 연구자들은 각 사회영역에서 지배적인 청소년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성찰적 청소년 연구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VI장). 청소년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상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이를테면 그들의 기본적인 사고틀을 형성하는 기초개념들이 생성된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맥락을 무시하면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규범과 인식에 과학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II. 지식사회학과 청소년 연구

최근 현대사회의 변화를 여러 측면에서 묘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지식이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이 과거보다 커졌음을, 혹은 지식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커졌음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대한 진단으로 ‘지식(기반)사회’라는 주장이 많은 추종자를 얻게 되었다. 사회학의 한 분과인 지식사회학은 인간과 사회의 지식이 생성되고, 순환되며, 재생성되는 과정을 살핀다(Kettler & Meja, 2001).³⁾ 1920년대 이 분과학문이 등장한 이래, 지식사회학은 변화를 겪는다. 이를 스위들러와 아르디티(Swidler & Arditi, 1994)는 두 형태, 즉 고전적 지식사회학과 새로운 형태로 구분한다.

새로운 지식사회학은 두 가지 점에서 이전 형태와 구별된다(Swidler & Arditi, 1994). 새로운 형태는 지식과 실재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수용하였고, 주된 탐구의 대상을 변화시켰다. 사회적 실재는 생활세계에서 의미에 따라 행위하는 인간들과 범주적으로 구별되는, 독립적인 “자연적” 사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행위는 해석에 근원을 둔다. 이 해석 과정을 통해서 사물들은 인간에게 유의미한 것으로 ‘생성’ 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실재는 인간의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지며, 이 만들어진 실재는 상징적인 형식으로, 다양한 지식형태로 전수된다. 이러한 지식과 실재에 대한

3) 물론 지식사회학을 사회학의 한 분과가 아니라, 그것의 인식적 출발점이라는 견해도 있다(Kettler & Meja, 2001 참조).

새로운 해석은 기존의 지식사회학이 유지하던 실재론적인 가정과 상치된다. 실재론적 가정은 실재와 지식의 일치(‘참된 지식’)와 불일치(‘이데올로기’)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핵심 문제다. 새로운 지식사회학에게 일치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실재가 인간의 해석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가정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오히려 지식이 생성되는 계기다.

기존의 지식사회학이 이데올로기 비판, 즉 실재와 일치하지 않는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을 사명으로 삼았다면, 새로운 형태는 그것과 거리를 둔다. 새로운 지식사회학은 ‘실재가 특정 사회적 집단이나 집합체에서 왜곡되어 묘사되는지’를 탐구하기보다, 대상에 대한 해석적인 계기를 전면에 내세운다. 인간은 사회적·비사회적 사물들에 대한 해석에 근거해서 행동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요컨대 새로운 지식사회학의 탐구대상은 ‘실재와 이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의 관계’가 아니라, ‘현실성이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구성되는 과정’이 된다. 새로운 지식사회학의 또 다른 특성은 탐구 대상이 되는 지식의 종류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기존의 지식사회학은 사상이나 세계관, 신념체계와도 같은 거대한 체계적 지식, 예를 들어 종교, 계급이데올로기, 혹은 과학에 분석의 주안점을 두었다. 하지만 새로운 지식사회학은 지식의 일상적 형태, 즉 일상적 지식을 중시한다(Berger & Luckmann, 1974: 16).

사회적 실재가 존재론적인 실체가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고, 일상적 지식까지 분석의 대상을 확장한 새로운 지식사회학은 청소년과 청소년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1) 청소년과 청소년기는 ‘자연적’ 실체가 아니다.
- 2) 청소년과 청소년기는 관계적 개념이다.
- 3) 청소년과 청소년기는 청소년에 대한 논의와 재귀적으로 연결된다.

청소년과 청소년기는 역사적인 조건들과 문화적인 상황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1960년 출간된 아리에스의 『아동의 탄생』은 이러한 명제를 역사적인 고찰로 입증한다(Ariès, 2003). 이 연구는 아동기가 불변하는 자연적 상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밝힌다. 이러한 이해방식에 따르면 아동기는 담론(discourse)의 대상이며, 나름의 역사를

지닌다. 만약 우리가 아동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곧 하나의 “문화적 표식(ein kulturelles Zeichen)”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Richter, 1987: 76). 그것은 사회적인 담론의 부분이며, 바로 이 담론에 의해서만 자신의 형식과 유효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당연히 아동기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 및 청소년기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청소년기와 청소년은 성인세계와 성인 개념과의 구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지닌다. 삶의 단계인 청소년기의 본질적인 특성이나 내용들은 그것에 내재된 속성에 기인하기보다 해당 시대의 지배적인 역사, 문화적인 삶의 조건들, 그리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론(semantics)에 의존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과 의미론은 성인중심적이다. 그렇기에 청소년기의 정의와 구성은 다른 삶의 단계(특히 성인기)에 대한 정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내용이 채워진다. 즉 우리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성인으로 상정한다(이하 내용은 Lenzen, 1994: 143).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서술은, 물론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무엇이 성인인지를 서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라는 규정은 정신적으로 성숙한 존재(라고 상정되는)라고 상정되는 성인과의 구별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과학적 의미에서 ‘아동/청소년은 무엇이다’라는 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무엇이 청소년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명백히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능력을 측정하는 아이큐의 수치를 통해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할 수 있을까? 성인보다 높은 아이큐를 가진 청소년도 많다. 육체적 성장을 수치로 측정하여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할 수 있을까? 성인보다 키가 크거나 몸이 무거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연령 역시 자의적인 기준이다. 25세는 성인이고 24세 11개월 29일은 성인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점은 언제나 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관념이 스며들어가 있다.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이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다. 알레스펠트(Alefeld, 1996)가 주장한 바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은 성인세계에 맞춰진 픽션이다. 청소년에 대한 논의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청소년의 삶과 조건(생활 세계),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 혹은 연구자가 속해있는 성인중심적인 장(field)의 특정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기의 본성이나 속성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변동과 발달과정을 알려주는 지진계로서 청소년기에 대한 담론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청소년과 청소년기는 또한 재귀적으로(recursive) 작용한다. 실질적인 청소년(기)은 이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50년대 한국 청소년들의 삶과 그 환경은 오늘날 그것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안다.’ 과거에 비해 현재적 청소년은 더욱 교육·자격(qualifications)·문화 중심으로 변화하였다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과 인식은 청소년들과 이들의 조건(청소년기)에 대한 일상적이며 과학적인 숙고 및 탐구의 산물이다. 즉 일상적이며 과학적인 청소년 담론은 청소년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미래사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교육과 자격 획득에 충실해야 한다’는 청소년 연구의 주장은 청소년들을 학교와 학원으로 몰아세우기도 하지만, 청소년 스스로 그것을 믿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예측에 따라 현재적 삶을 강제적·자발적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삶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념을 변화시킨다. 그 예는 아마도 청소년문화가 될 것이다. 즉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욕구와 새로운 자국의 지속적인 생산은 교육과 자격 중심적인 청소년관에 문화적인 특성을 부가시키는(대체가 아니라) 것으로 나타난다. 바로 이 때문에 청소년과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과 과학적인 시각은 순환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요컨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청소년에 대한 구성과 관념들은 현재적인 청소년의 삶과 순환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구성과 관념은 이들에 대한 개인적·사회적인 인지와 인식을 조정하여, 이들에 대한 평가와 규정, 결과들에 대한 표준으로 기능하면서 이들의 실제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청소년들은 이러한 영향권 속에서 나름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것은 재차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인 구성과 관념에 재차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제껏 살핀 바와 같이, 새로운 지식사회학은 청소년 연구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논제들을 제공한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과 청소년기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과 특정 장에서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사회적 실천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Hafeneger, 1995; Lange, 1995 참조). 이를테면, 기존의 논의들은 통념이 사회적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1) 어떤 이유로 특정 장의 실천(예컨대 교육적 실천)들이 상이한 청소년 통념을 수용하고 있는지(자율적인 청소년 vs. 문제 청소년), (2) 왜 각 사회적 실천들이 청소년에 대한 상이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교육적 실천과 법률적 실천의 차이), 그리고 (3) 상이한 청소년 통념들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모습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 이 연구는 일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호른슈타인(Hornstein, 1994)의 제안을 좇아 청소년상(Jugendbilder)으로 재규정한다. 호른슈타인(1994: 573)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구성들이 청소년상들과 이미지로 실체화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상은 청소년의 정의(청소년은 무엇이다), 청소년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며,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 무엇이며, 그래서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청소년상은 현실을 모사·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원을 형상화하는 규범적인 특성을 지닌다.

Ⅲ. 청소년상과 청소년 연구

우리 인간은 시각적 이미지, 즉 눈에 보이거나 마음에 그려지는 사물이나 현상의 형체인 상(像)을⁴⁾ 바탕으로 말하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미디어 이론가 볼츠(Norbert Bolz)는 “인간은 그림(像)을 필요로 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림 중독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투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세계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Bolz, 1995: 15) 우리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그림과 상을 통해 상호이해를 도모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세계, 즉 우리의 사회적 현실성(Wirklichkeit)이 그림이나 상을 통해 재현(representation)될 뿐만 아니라, 구성되고 만들어짐(constituted and brought into being)을 말한다(Mitchell, 1994: 41; Bohnsack, 2003: 19에서 재인용). 그림과 상으로 세계가 구성되고 만들어진다는 주장을 세계에 대한 해석이 기본적으로 도상적 매체(물질적인 그림이나 사진)로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상들이 행위를 이끌어낸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사물이

4) 여기서 사용되는 상 개념은 하이데거의 세계상(Weltbilder) 논의에 기대고 있다(하이데거, 1985: 42-43). 하이데거는 세계상을 세계에 대한 상이 아니라(즉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상으로 파악하는 행위 자체, 즉 ‘상을 가짐’으로 정의한다. 이 ‘상을 가짐’은 세 뜻을 함축한다. 1) 어떤 것을 잘 앎, 2) 잘 준비되어 있음, 그리고 3) 거기에 자신을 자리매김함을 함축한다. 청소년상은 3)의 뜻, 즉 거기에 자신, 즉 성인을 자리매김함을 함축한다.

나 현상에 대한 상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암묵적, 혹은 내재된 지식(implizites oder inkorporiertes Wissen)으로 행위를 구조화하기 때문이다(Bohnsack, 2003: 19). 요컨대 상은 사물 인식(해석과 구성)에 사용되며, 행위를 유발시킨다. 이것은 상의 이중적인 의미와도 관련된다. 상은 ‘눈에 보이거나 마음에 그려지는 사물이나 현상의 형체’라는 뜻과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모범’이나 ‘본보기’의 뜻으로 쓰인다.

과거 오랫동안 상은 높이 평가되었다. 그것들은 일종의 본보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행동을 주재하였다. 특히 교육학은 오랜 동안 상, 즉 본보기가 되는 상을 고안하는 데 주력하였다(Peez, 1992: 11). 예를 들어 교사의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서 정원사의 상이 쓰였다.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은 정원수나 정원식물로 묘사된다. 교사는 정원사처럼 학생들의 거칠고 야만적인 충동들을 잘라내고, 해가 되는 요소들을, 마치 잡초들을 뽑듯이 뽑아내어 그들을 건강하게 길러내야 한다. 하지만 현대적인 교육학은 본보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Peez, 1992: 12; 반대되는 견해로 김영래, 2002 참조). 특히 두 가지 점이 문제로 대두된다. 어떤 본보기를 수용한다는 것은, 교육학적인 목표들, 예를 들어 성숙성, 해방, 자기실현, 자율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본보기는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자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추종자들은 본보기가 보여주는 이상적인 모습과 자신의 실질적 상황간의 괴리 속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그렇기에 현대 교육학은 상과 본보기를 과학적이라는 외피로 포장된 ‘엄밀한 규칙(if-then-rule)’으로 대체하려 한다(Peez, 1992). 만약 특정한 조건 하에서 특정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러저러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렇지만 상과 본보기가 교육적 맥락에서 완전히 무력화된 것은 아니다. 드물지 않게 학부모와 교사, 교육관료,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 수도 없이 많은 ‘엄밀한 규칙’으로 부담을 받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구래의 상과 본보기가 일종의 도움 장치로 여전히 작용한다. 이들은 분화되고 과편화된(그래서 복잡한) 교육학적인 개별지식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바로 이런 점에서 청소년상을 청소년신화(Jugendmythos)와 비교할 수 있다(Boehme, 2000). 최근 ‘신화’는 사회과학적으로 주목 받는 주제다(Hasse & Kruecken, 1999). 조직사회학, 특히 신제도학과(neo-institutionalism)는 ‘신화’가 조직/행위자가 고려되는 현상 내외부의 변수들의 복잡성, 그리고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연관관계로 행위능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복잡한 현상들은 조직/행위자가 쉽게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 이 상황에서 신화의 매력은 복잡한 상황에 대한 “단순하고 더 이상 캐물을 수 없는 인과적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이다(Hasse & Kruecken, 1999: 68). 청소년상이 제시하는 ‘단순한 인과적 설명’은 행위의 목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원할만한 가치가 있는 상태를 가시화하며, 관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그 어떤 교과서도 삶의 이상적인 상황, 성공적인 아동기, 신성한 가족, 긍정적인 청소년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런 텍스트들은 삶의 상황, 아동기, 가족, 그리고 청소년기가 무수한 문제 요인들로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제도화된 지식과 앞으로 나아갈 바(곳) 사이에는 공백이 존재하며, 상과 본보기는 바로 이 공백을 메워준다.

현실적 문제와 지식의 공백을 메워주는 상의 기능은 그러나 위험요인에 노출의 정도를 향상시킨다. 왜냐하면 상은 현실 적합성과 같은 검증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잘못된 지도를 제공할 수 있으며, 드물지 않게 “가상적 상황(as-if-situations)”를 생산하기 때문이다(Hornstein, 1994: 573). 상의 현실 적합성이 통제될 수 없는 한,⁵⁾ 마치(as if) 그것이 여전히 적합하고 유효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 바로 이 점이 상의 위험이다. 이를테면, 21세기 현재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상들, 예컨대 ‘건전한 청소년’의 상들은 실제로는 이전(성인)의 꿈에 불과한 것을 묘사할 뿐이며, 따라서 쓸만한 교육적 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청소년 연구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지식과 인식들이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성인세대의 규범적인 입장과 기대, 희망과 두려움 등으로 중첩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Hollenstein, 2006: 46). 즉 성인세대가 청소년에 대해 갖는 청소년상은 청소년에 대한 담론에 영향을 미친다. 과학적인 해석들 역시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예를 들어 특정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로 ‘요즘 청소년이 게으르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봉하는’ 청소년상을 확인하기 위해 ‘게으른 청소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Abels는 청소년에 대한 지식들에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 비판적인 자세가 필요로 하다고 본다(Abels, 2000: 76ff.)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생산된 청소년상이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Abels, 2000: 76).

지금까지 논의를 기반으로 청소년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⁶⁾ 청소년상은

5) 역설적이게도 상의 실질적 매력은, 그것의 현실 적합성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6) 청소년상에 대한 정의는 Lüscher(2001)의 아동상에 대한 논의에 힘입은 바가 크다.

청소년과 청소년기에 대한 일종의 비전(vision)이다. 이 비전은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정의다(Lüscher, 2001). 이 역할과 지위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유효한 것이다. 청소년에게 부여된, 그래서 이들에게서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은 사회적 관계망에서 이들의 역할과 지위를 규정한다. 청소년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이 관계맺음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역할과 지위에 따라 행위 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따라, 혹은 이에 반하여 행위 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가, 차별과 특권 부여(역차별)가 이뤄진다.

청소년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정의인 청소년상은 고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변동에 ‘내던져져’ 있다. 청소년상의 생성과 변동은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과정을 두 차원, 즉 상징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⁷⁾ 상징적 차원에서는 청소년의 역할과 지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둘러싼 공적인 논쟁·충돌이 일어난다.(일종의 “담론적 실천”; 서덕희, 2003 참조) 예를 들어 청소년을 ‘보호와 육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과 ‘해방’ 되어야 하는 존재로 보는 관점은 상징적 투쟁을⁸⁾ 벌이고 있다(청소년상의 유형은 다음 장에서 상술). 구체적인 사회적 장에서는 일종의 “상징적 자본(Bourdieu)”인 청소년상에 근거한 실천이 이뤄진다(일종의 “사회적 실천” 영역; 서덕희, 2003 참조). 보호와 육성이라는 청소년상에 근거한 일상적이며 제도적인 실천은 해방적 관점에 근거한 것과 충돌을 벌이게 된다.

청소년상이 담론적인 실천과 일상적·제도적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독일의 청소년 사회학자 그리제(Hartmut Griesse)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독일의 청소년 사회학을 다음과 같이 자조적으로 평가한다. “경험적 연구는 기껏해야 이

7) 이 차원의 구분은 ‘비판적 담론 분석방법(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대상 구분과 유사하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덕희(2003) 참조.

8) 부르디외(1987)는 ‘젊은이’와 ‘성인’ 간의 일상적인 상징적 투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 양 집단들의 상징적 투쟁의 대상은 청소년과 성인의 의미와 위치지움(Positionierung)을 관장하는 “구분체계”다(1987: 744). 이러한 구분체계를 둘러싼 투쟁에서 중심 문제는, “사회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인간상을 관철시키는 것이다”(같은 곳). 이러한 부르디외의 언급은 우리의 접근 방식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청소년상은 그가 말하는 ‘인간상’의 특정 일면이며, 동시에 -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 청소년상에 대한 논의는 성인의 자기이해(성인상!)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미 이론적·이데올로기적으로 고정된 관념을 정당화하는 보조적인 업적, 장식물, 혹은 일러스트레이션에 불과하다.”(Griese, 2000: 43) 그리제에 따르면, 청소년 연구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대답까지도)들은 “전(前)과학적인, 혹은 메타이론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청소년에 대한 이론구성을 결정하는 것은 연구자 개인의 세계관, 선입견, 그리고 “전과학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인간상(人間像)”이다(같은 곳). 이는 결국,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청소년상, 즉 그들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성인중심적 청소년상을 “해석하고 정의하는 권력”이 청소년 연구에서도 관철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리제는 계속해서 과학적인 실재와 사회적인 실재 간에 바늘구멍이 존재하며, 이것은 매우 엄격한, 사회적인 수요에 종속적인 선택을 통해서 무엇이 연구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로 획득한 인식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사회적인 실재를 변화시킨다. 그 이유는, ‘청소년’은 ‘청소년’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들은 지배적인 청소년, 폭력, 하위문화에 대한 상에 반응한다. 따라서 우리의 부정적인 청소년 구성물이 변화하고, 우리의 ‘인간상’이 변화한다면, 아마도 젊은이들의 실재적인 행동도 역시 변화할 것이다.”(Griese, 2000: 12)

그리제의 주장은 단언컨대 과장이다.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용되는 청소년상이 담론적인 실천과 일상적·제도적 실천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실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것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그리제의 관점과 비교될 수 있는 폰 트로타(Von Trota, 1982)와 로트(Roth, 1983)에 대한 미터라우어(Mitterauer, 1992)의 비판에서 이 점이 지적된다. 앞의 두 저자들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규율화”와 “청소년의 발명”이 국가가 청소년, 특히 ‘위험 계급(dangerous class)’인 노동계급의 청소년 자녀들을 지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주장한다(Roth, 1983: 140). 그래서 청소년 개념은 실제 청소년을 규율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개념은 청소년에 대한 반대말”⁹⁾이다(같은 책: 141). 청소년상과 청소년 개념이 청소년들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규율화하기 위한 도구라는 주장에 대해서 미터라우어(1992)는 그 주장의 일면적 해석을 경계한다. 그는 청소년의 지배와 규율화의 역사의 이면에 ‘그들의 자율성과 행위공간의 확장’이라는 측면, 특히 경제적인 자립과 연결된 소비문화와 여가활동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것은 아마도 지배와 자율성, 양 관점과 서술양식의 연결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한

9) 즉 청소년 개념은 그들을 ‘위험’ 것이 아니라 그들에 반하는(지배라는 의미에서) 것이다.

다. 이는 결국, 청소년상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들의 상호대립과 상호연대(경우에 따라서 상호무시)가 청소년상의 변동과 다양성, 그리고 더 나아가 실제 청소년들의 변화와 그들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한 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상의 유형학(Typologie)를 살펴야 하는 필요성이 등장한다.

IV. 청소년상의 유형학

청소년처럼 사회의 집합적인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받는 사회적 집단은 없다. 청소년은 에너지와 삶의 기쁨, 자연스러움, 새로운 출발, 혁신을 표현한다. 한국을 포함한 서구사회에서 나타나는 젊음에 대한 숭배(컬트)는 영원한 청소년성에 대한 집합적인 소망의 극단적인 표현이다. 물론 청소년은 숭배의 대상만은 아니다. 성인들은 성장하는 세대들이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과 염려를 갖는다. 혹시 그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들을 거부하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를 갖는다. 그들의 돌출적인 생각과 행동들이 공동삶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한다.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은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인사회는 특별히 주목한다. 그리고 이 주목은 젊은 세대를 사회에 제대로 편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청소년에 대한 성인사회의 양가적인(ambivalent) 평가는 상호대립적인 청소년상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립은 청소년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서구(특히 영국과 독일)의 청소년 사회학은 두 가지 분리된 관점, 즉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경로를 주로 연구하는 “청소년 과도기 전통”과 “청소년 문화연구 전통”으로 발전하였다(MacDonald et al., 2001: 2.1)¹⁰. 과도기 전통은 “심리사회적 발달의 선형적인 목적론 모델(linear teleological model of psycho-social development)”을 함축하며, 직업의 획득을 청소년기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간주한다(Cohen & Ainley, 2000: 80). 경험적이고 정책 지향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이행연구 전통과 달리, 하위문화적인 스타일과 저항을 민속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청소년 문화 전통은 청소년의 고유의 가

10) 연구자들은 참조한 이 논문은 인터넷 version이다. 때문에 인용은 원문에 명시된 단락 번호로 한다.

치를 인정하는, 그래서 청소년 중심적인 특성을 지닌다(MacDonald et al., 2001: 2.2). 이는 결국 두 가지 청소년상이 일상적 인식과 과학적 토론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립적인 두 청소년상의 생성은 실제로는 대립적인 계급의 생성과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는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계급이나 젠더 차이에 상관없이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18~19세기 중부유럽에서는 청소년이라는 말은 남성 시민 계급의 자녀들에게만 사용되던 명칭이었다(Dudek, 2002: 336). 18세기 말부터 사용되던 오늘날 청소년에 해당하는 “젊은 친구들(Juenglinge)”은 ‘기독교를 믿는 시민계급의 젊은 남성들, 특히 김나지움 학생’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이 ‘젊은 친구들’이라는 말은 1870년대 이후부터 두 가지로 분화된다. ‘젊은 친구들’은 예전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노동계급의 남성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젊은이들(Jugendliche)”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젊은이들’이라는 명칭은 19세기 말에 법률가들의 의미론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잠재적 범죄자인 타락한 젊은이”, 그리고 이들은 ‘당연히도’ 노동계급의 자녀를 지칭하였다. 1910년대에 비로소 국가가 강력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면서, ‘젊은이들’은 긍정적인 함의를 획득하게 된다. 이제 ‘젊은이들’은 모든 ‘남성’ 청소년을 지칭하는 새로운 사회적 범주로 등장하게 된다.

청소년 명칭에 대한 역사적 에피소드는 국가권력의 성장으로 계급 장벽이 적어도 의미론적으로는 무너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두 가지 대립적인 청소년상은 여전히 잔존한다. 그런데 두 청소년상은 다양한 사회적 발전 과정에서 내부적 분화를 겪게 된다. 청소년상의 분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역시 교육학적인 담론이다. 이미 위에서 ‘젊은 친구들’이 김나지움을 다니는 시민계급의 청소년들을 지칭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회적 범주의 등장은 ‘교육의 대상’으로 청소년의 역할과 지위를 규정하는, 즉 교육적인 청소년상이 사회의 특정 부문에서 수용되었음을 말한다. 근대적인 교육과 함께 등장한 교육적인 청소년상은 그 이후 교육학적인 발전과 정치적인 정세의 변동, 그리고 사회적 변화 속에서 분화된다. 노동계급 자녀들의 양적인 성장으로 ‘위험과 위기의 청소년’의 등장, 개혁교육학(Reformpaedagogik)과 청소년 세대 운동(철새운동, Wandervogel)에 따른 ‘희망의 전도사로서 청소년상’의 부상, 그리고 가장 최근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성인의 파트너인 청소년상’의 정립이 그것이다(〈표 1〉 참조).

<표 1> 4 가지 청소년상¹¹⁾

청소년상 유형	내 용	생성 시기	사회 및 담론 영역	중심사상
교육의 대상	교육: 교육적 노력의 대상.	18세기, 루소, 교육학	교육학. 시민계급의 자녀	보호
위험과 위기	통제: 사회적 위험을 만들어내는 집단. 그들의 위험성은 일탈이나 반항과 같은 횡방충동	1870년대: 대도시의 프롤레타리아 남성 청소년,	범률가: “잠재적 범죄자, 타락한 젊은이”(노동계급의 자녀)	통제
희망의 전도사	희망: 청소년은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변동의 촉발자. 사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1900년대 청소년운동과 개혁교육학	개혁교육학, 정치적 프로파간다, 소비시장의 확장.	후원
파트너	대화: 청소년은 성인의 파트너.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1960~70년대	68세대의 유산	대화

가장 유서 깊은 청소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적 청소년상은 18세기 이후 근대 교육학의 성립과 궤를 같이 하면서 등장한다. 그 이전까지 청소년은 아동 범주와 마찬가지로 ‘작은 성인’으로서 간주되었다. 근대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성인과 구분되는 청소년상이 정착되는 것은 결국, 특정 연령단계에 속하는 이들은 특수한 교육적 노력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초기 단계에서 교육적 청소년상은 특정 계급에게만 적용되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노동계급이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양적으로 비중이 커지게 된 이들 노동계급 청소년들은 사회의 ‘잔여범주’로 존재했다. 연령단계로는 교육적 청소년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은 교육적 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마치 외지인이 공동체를 방문한 것과 같은 의미에서 ‘이방인(Fremde)’이다(Baumann, 2000). 이방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친구도 될 수 있지만 적도 될 수 있는 양가적인(ambivalent) 존재라는 점이다. 바우만(Baumann, 2000)이

11) 이 표는 Hafeneger(1995)가 시도한 청소년상의 구분, 즉 “희망, 통제, 교육, 그리고 대화(Dialog)”에 기대어 작성되었다.

말한 바처럼 이방인은 모든 것을 명료하게 파악해야 하는(적이 아니면 친구), 그래서 양가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근대에 대한 도전이다. 이러한 도전은 그들을 이질적인(fremd) 사회범주로 만드는 것으로 응징된다. 즉 그들은 ‘사회적 위험을 만들어내는 집단이라는 청소년상’으로 낙인찍힌다. 이들이 위험한 이유는 그들의 양가성이 야기하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며, ‘문제집단 청소년상’은 이를 “과학적으로 자연화(Naturalisierung)” 시킨다.¹²⁾ 이들은 일탈이나 반항과 같은 횡방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야만인’이며, 이 야만적인 충동은 생물학적인 요인의 결과다.

‘희망의 전도사’ 청소년상의 등장은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다. 먼저 개혁교육학은 교육 대상 청소년상이 터하고 있는 근대적 교육학의 기본 명제를 부정한다. 교육은 성인교육자가 청소년교육자를 어떤 이상적 목표를 향해 ‘이끄는(erziehen)’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bilden)’ 가는 과정이다. ‘청소년이 청소년을 이끌며, 미래는 청소년과 함께’라는 개혁교육학의 청소년 이상화(理想化) 경향은 정치적 운동과 연대하여 극단으로 치달는다. 성인사회는 근대사회의 여러 문제(예컨대 지배의 공고화, 근대사회의 경직성, 환경 파괴 등)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에, 아니 그 문제들을 성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미래는 청소년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세대운동은 기성 정치세력에 의해 도구적으로 사용된다.¹³⁾ 결과적으로 ‘미래 희망의 청소년상’은 교육학적인 영역을 초월하여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영역까지 확장된다. 여기에 소비자본주의의 발달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매력·소비력을 지닌 청소년들은 경제체계가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주체가 된다. 소비자본주의화와 개혁교육학, 1960년대 서구국가들에서 나타났던 문화·정치운동, 그리고 사회복지국가가 결합하여 ‘파트너 청소년상’을 정착시킨다. 교육은 청소년(교육자)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에, 청소년들은 무시될 수 없는 경제(소비)·문화 주체이기에, 또한 권리를 가진 주체이기에, 그들은 성인의 파트너로 간주된다.

청소년상의 분화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학적인 담론투쟁(상징적 투쟁)과 정치적인 정세의 변동,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화가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는 또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우리는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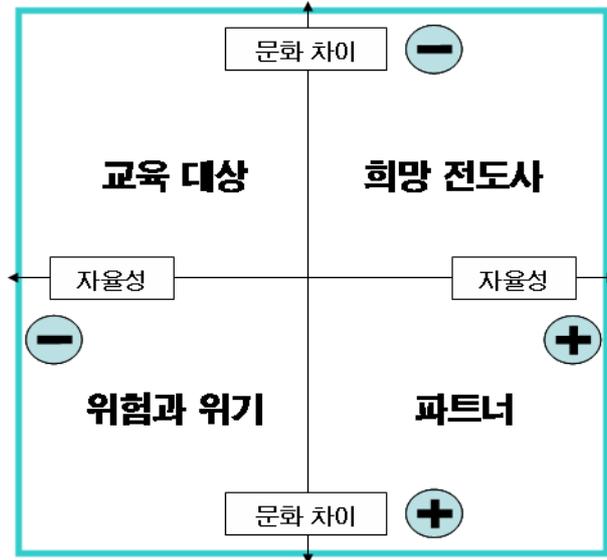
12) 사회적 차이가 자연화, 과학화되는 기제, 즉 생물정치(Bio-Politik)에 대한 Hoehne,(2000: 177-180)의 지적 참조.

13) 국가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 통칭 나치즘)는 청소년을 가장 성공적으로 도구화시킨 세력이다.

에서 청소년상이 역사적으로 네 가지로 분화됨을 보았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역사적 분화를, 그리고 그 분화된 형태의 상관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유형학(Typologie)을 제안한 바 있으며(전상진, 2004), 또한 현대자동차 산업연구소와 함께 한국 후기청소년(서울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성장유형의 추출)를 수행한 바 있다(미래트랜드연구팀, 2005). 청소년상 역시 이들 연구들이 제안한 유형학 모델에 기대어 배치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청소년 성장유형의 모델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청소년과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자율성과 의존성이 교차하면서 생기는 역설이다. 즉 청소년들이 성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나름의 모색’을 즐기치게 시도한다는 점이다. 성인에 대한 의존성은 삶의 지향을 미래의 성인세계에 두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청소년기는 곧 성인세계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 즉 이행 과정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나름의 모색’을 강조하는 삶의 지향은 청소년기를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이 아니라 나름의 목표를 가진 자립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삶의 지향은 성인세계가 아니라 현재적인 세계, 즉 동료 청소년세계(의 문화)에 놓여 있다. 이행 지향과 현재 지향을 각각 강약(+,-)의 양 끝을 가진 연속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행 지향이 강한 경우와 약한 경우, 그리고 현재 지향이 강한 상황과 약한 상황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행 지향과 현재 지향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역설적 상황을 만드는 두 축이다. 즉 두 축은 평행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로 교차된다. 이행과 현재지향의 축을 교차시키는, 그래서 네 개의 필드를 가진 청소년 설명 모델은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들을 묘사할 수 있다.

청소년상 역시 위의 모델을 적용하여 그 유형들을 살필 수 있다. 다만, 청소년상의 유형학을 위한 모델에서는 위에서 말한 두 축이 조금 변형되어야 한다. 세로축은 ‘문화 차이’의 강/약으로, 그리고 수평축은 자율성의 강/약으로 놓을 수 있다. 이 기본모델에 위에서 살펴본 4 유형의 청소년상을 아래 [그림 1]과 같이 배치할 수 있다. 교육적 청소년상은 파트너 청소년상에 비해서 문화 차이가 적으며, 자율성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 청소년상은 희망 청소년상에 비해서 문화 차이는 높고, 자율성은 떨어진다. 문제 청소년들이 자율적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외적인 유혹과 위협에 ‘현혹’되고 조작되기 쉽기 때문이다. 문제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기대(자신들을 따라줄 기대)를 저버리고 문화적 차이를 극대화시킨다.



[그림 1] 청소년상의 유형 모델

이 모델을 밑그림으로 매우 다양한 청소년상들을 조망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유형화 모델을 국가간 비교에서 쓰일 수 있다. 1989년 유엔의 아동·청소년 권리협약은 파트너 청소년상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아동·청소년 권리는 국가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서구 유럽 국가들과 한국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최원기(2005: 12)는 한국사회에서의 “시민권의 문제로” 여러 사항을 지적한다. 특히, 청소년의 시민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과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시민권 운동?)이 조직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계속해서 최원기(2005: 12)는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라는, 인용자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탈자를 인용자가 첨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서구에서 파트너 청소년상에 근거한 청소년 시민권 담론이 한국에서는 다른 청소년상(문제, 혹은 교육 대상의 청소년상)의 지평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문화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다. 서구 유럽의 경우, 청소년 문화가 보여주는 혁신의 가능성(희망 청소년상), 혹은 이질적 문화의 수용(파트너 청소년상)이라는 측면에 주목하는 데(물론 모든 논의가 그런 것은 아니다) 반해서, 한국의 경우 이를 문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정유성, 1998).¹⁴⁾ 이는 곧

청소년상과 담론, 그리고 실제 청소년 간의 이중적 불일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서구에서 유입된 담론에 내재된 청소년상과, 이를 수용하는 주체의 근저에 깔린 청소년상,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청소년들의 생활양식과의 불일치가 드러난다. 청소년상 유형모델의 쓰임새는 국가비교 및 문화비교를 위한 쓰임새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모델은 청소년들의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주도적인 청소년상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볼 수 있게 한다.

V. 청소년상과 사회영역들

각 사회영역은 나름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소년들의 삶에 나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각 사회영역은 고유의 주도적인 청소년상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매스미디어 보도, 과학 및 연구, 정책, 그리고 경제에서 주도적인 청소년상을 가지고 한국 상황을 거칠게 묘사하고자 한다.

매스미디어에 대한 논의는 일단 보도와 비보도 부분(오락, 여흥 등)으로 나눈다. 비보도 부분은 추후에 설명할 경제 부분에서 논의한다. 매스미디어 보도를 통해서 유포되는 청소년에 대한 상은 서로 모순적이다. 한 편에서는 문제 청소년들의 스캔들이 지적되고, 또 다른 편에서는 교육 청소년상에 근거한 본보기들이 제시되며, 저편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영웅’들의 영웅담이 소개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매스미디어, 특히 신문은 문제 청소년상이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국 신문의 청소년 관련 기사”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뉴스보도는 “청소년을 매우 일탈적으로 조명하고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일회적이고 피상적인 형태로 다루고 있다”(김선남, 2005: 111). 그렇기에 “청소년 관련 보도 성향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다”(113, 이하 인용표시는 모두 같은 곳) 특히 “청소년의 부분 문제를 전체 문제로 확대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으며, 충격조장식의 보도 수법을 통하여 흥미위주의 선택

14) 이 문제는 이중적이다. 먼저 교육 대상의 청소년상이 지배적인 한국의 상황에서 청소년 문화는 ‘교육적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보는 시각과, 그 문화가 청소년들의 일탈과 범죄를 고양시킨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서널리즘을 부각시”킨다. 계속해서 저자는 이런 보도 행태로 말미암아 “문제의 현실을 과장하고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평가한다. 이는 곧, 신문을 포함한 매스미디어 보도는 현실을 전하기보다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주도적인 청소년상, 즉 문제 청소년상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미디어의 청소년 관련 보도는 성인과 청소년들의 간격과 상호 소외를 없애기보다는 강화하고 있다.

과학과 연구에서도 문제 청소년상이 주도한다. 90년대 후반부터 지적된 청소년 연구의 문제, 즉 청소년들을 “문제적 존재”로만 보는 시각의 편협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 안타깝게도 -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정유성, 1998).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본 청소년 연구 분야에서는 문제 청소년상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어 『교육사회학회』는 1996년 이래 학회지 『교육사회학연구』와 학술발표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18개의 이슈들을 다룬다¹⁵⁾. 이중에서 ‘청소년 문제’와 ‘비행 청소년’을 포함한 9개에 달한다. 『한국사회학회』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¹⁶⁾ 양 학회의 첫 번째 공통점은 청소년 연구에 대해 매우 인식하다는 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압도적인 다수가(12개) 비행과 일탈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모습을 청소년 연구 분야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최상진 외, 2004). 요컨대, 한국의 청소년 연구는 문제 청소년상과 교육 대상 청소년상의 지평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정책 역시 이런 부정적인 청소년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청소년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조망하는 한 논문은 1980년대를 “청소년정책의 각성기”로 본다. 그 각성의 계기를 “당시 청소년문제의 일반화현상”에서 찾는다(조영승, 2003: 24). 계속해서 이 논문은 “당시 청소년문제의 일반화현상은 일탈행위의 만연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1983년 4월 대구 향촌동 디스코 클럽 화재와 1984년 2월 서울 석관동 맥주홀 화재로 밤중에 술마시고 춤추며 놀던 10대 청소년들이 대량으로 몰사한 사건”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어떻게 당시 청소년문제의 일반화를 추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더욱 궁금한 논점은, 이 사건들을 청소년 일탈이 만연된 것을 각성하는 계기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화재당국과 유흥업소의 사고에 대한 무대책과 무방비를 각성하는 계기로 보아야 하는지 불분

15) 학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DBpia에서 2006년 6월 검색.

16) KISS,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에서 2006년 6월 검색.

명하다는 점이다. 요컨대, 충격적인 사건들의 결론은 여러 방향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청소년정책의 각성 계기로 보는 다소 무리한 추론이 등장한 것은, 결국 문제 청소년상이 개입되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

청소년상과 경제의 관계는 다른 사회영역과 달리 부정적인 청소년상이 주도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아마도 소비주체로서 청소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의 비보도 부문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논점에서 미디어 역시 경제적 주체로 상정한다. 이유는 청소년의 미디어 소비 역시 시장의 논리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는 소비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역동적이며 미래의 주역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시장에 참여하며, 더 나아가 일정한 생산적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통념(Prosumer, New Economy=청소년)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제와 청소년의 관계는 보다 복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의 상황을 스케치하기 전에, 여기서 잠시 “청소년기의 경제적 진화” 개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빈터스베르거(Wintersberger, 1998; 2000)는 근대 이후 청소년기가 다음과 같은 6개 단계를 거쳐 진화하였다고 본다.¹⁷⁾ (1) 전산업적인 청소년기; (2) 초기산업 청소년 노동; (3) 인간자본인 청소년기; (4) 소비대상인 자녀(청소년);¹⁸⁾ (5) 새로운 소비자인 청소년; (6) 새로운 생산자인 청소년. (1)과 (2)에서 청소년 자녀는 노동력이라는 경제적 의미를 지닌다(자녀=노동력; 청소년=작은 성인). (3)에서 비로소 청소년의 역할과 지위가 성인과 구별되는 상황이 등장하는데(19세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상황은 청소년의 즉각적인 경제적 가치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교육적 투자)로 후일 더욱 큰 이익을 기대하는 것을 말한다(청소년=교육 투자대상). (5)와 (6)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청소년들의 주체화 과정의 본격화를 말한다. 발달·교육기획(project)은 당사자가 아니라, 타자(부모, 성인)가 강제하는 미래지향적인 기획이다. 청소년이 ‘경제적으로 온전한 소비자’로 등장하는 것은 현재지향적인 자율성기획이 공고화되었음을 말한다. 미디어

17) Wintersberger(2000)는 물론 청소년기가 아니라 아동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저자의 표현 아동기는 실질적으로 청소년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아동기 표현을 청소년기로 바꿔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

18) (4)는 청소년이 소비의 대상으로 등장한 단계를 말한다. 아동·청소년 사회학자 Zelizer(1994)가 제안한 자녀의 감성화(sentimentalization) 개념은 이전 시대까지 주가 되었던 자녀의 생산자 가치(가치생산)가 소비의 가치(소비대상의 가치)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다.

는 청소년과 상업적인 시스템이 연결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다. 바로 이 미디어의 중재는 자율성 기획을 강화시키는 데 유리한 조건들을 창출한다(Wintersberger, 1998). 물론 이것은 이중적인 기반위에 서 있다. 한 편으로 이 자율성 기획은 계몽적-진보적인 관점에서 성인사회를 지향하는 사회화 기획에 대한 대안으로서 환영받기도 한다. 하지만 상업적 체계가 청소년 세계로 침입함으로써 생기는 위험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청소년의 경제적 역할과 지위가 주로 자율적인 시장 참여자로 정의된다는 것을 청소년상 유형학에서 본다면, 경제가 청소년상을 유형학 모델의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경제적 청소년상이 미래 및 파트너 청소년상의 강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경제가 청소년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유형학의 왼편과 오른편의 대립적인 발전으로 묘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놀이와 학습을 합치시키면 좋겠다는 소비자의 니즈는 시장이 놀이와 학습의 경계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Hengst, 1996). 이는 청소년상의 대립적인 각이 무너지는 것이거나, 혹은 미래 희망 청소년상의 새로운 변모가 이뤄지는 것일 수 있다. 경제적 발달이 청소년상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대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는 더욱 자율적인 청소년상을 유포시키며, 다른 사회영역에서 주도적인 청소년상과 대립각을 이루기도 하지만(‘게임에 탐닉하여 학습을 등한시하는 청소년’, ‘소비문화에 젖은 문제 청소년’, 공존을(‘놀면서(소비하며) 배우기’) 모색하기도 한다.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나타나는 주도적인 청소년상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¹⁹⁾ 경제와 미디어(경제 주체)를 제외한 다른 사회영역, 특히 미디어 보도, 청소년 연구와 정책에서는 [그림 1]의 왼편에 있는 청소년상들이 주도적이다. 이러한 전반적 한국 상황에 반해서 유독 경제적인 활동은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은 완전한 소비자의 역할을 부여받고, 만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시장은 각 청소년상의 뚜렷한 경계를 무력화시키기도 하며, 공존을 도모하기도 한다. 요컨대, 청소년들의 경제적 포섭

19) 이 요약은 이 연구의 두 가지 한계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먼저 청소년 생활세계와 행동양식과 관련된 청소년상의 모든 측면을 다룬 것은 아니며, 직관적인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다.

(inclusion)은 그들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그들의 자율성, 동시에 자율적인 청소년상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도록 돕는다. 하지만 경제적 자율성 기획이 갖는 위험성, 즉 시장과 미디어가 청소년 세계로 침입하여 생기는 위험이 또 다른 종속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VI. 나가며: 성찰적 청소년 연구를 위한 최소 지침

아벨스(Abels, 2000)가 지적한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지식에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 비판의 자세가 필요로 하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연구자 자신이 가지는 청소년에 대한 어떤 상이 연구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소년상이 청소년에 대한 성인의 편견이나 고정 관념으로 작용하여, 실제 청소년들의 생활이나 생각을 직접 보기보다, 나름의 잣대로 이를 재단하고, 왜곡하고, 또 도구화시킬 수 있다.

청소년상의 위험성은 비단 '부정적인' 시각들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상의 '긍정적인' 유형, 예컨대 청소년을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잠재력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를 가장 적절히 사용한 집단이 바로 독일의 국가사회주의자(나치주의자)다. 히틀러의 유명한 선언, 즉 청소년을 취한 자가 바로 미래를 갖는다는 선언은 미래 청소년상을 자신의 권력을 위해 도구화한 전형적인 예다. 유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미디어가 생산하는 '자율적 소비인간상' 역시 이윤 취득을 위한 도구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을 성인과 같은 위상에 놓고, 이들을 파트너의 지위로 가져다 놓은 것 역시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자율적인 사회적 행위자(agency)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가족과 성인들의 보호와 후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상은 하나의 상에 불과하다. 그것은 청소년의 실재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성인사회가 구성한 규범적 구성체에 불과하다. 청소년상이 단지 하나의 구성에 불과하다고 해서, 그것이 실재에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일상적 생활, 과학적 담론, 미디어의 보도, 그리고 국가의 정책에서 특정한 청소년상은 허구의 한계

를 뛰어넘어 실재를 만들어가는 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동시에 특정 청소년상이 청소년 본인들의 자기이해를 규정짓기 때문에, 내적인 자기통제력의 근원이 되면서, 구성이 실제로 전화된다.

한국 성인사회 전체에서 부정적 청소년상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심각한 결과에 대한 두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성인사회의 지배력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미래 한국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정체성을 강요당하고, 스스로 이에 동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부정적 청소년상으로 각인되고 이를 수용한 청소년들은 자율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정체성을 지닌 시민으로 자라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의 전제는 성인사회의 지배력이 지속될 수 없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예를 들어 지구화된 청소년 문화의 자극으로, 혹은 경제활동에서 주도적인 자율적 청소년상이 헤게모니를 쥐게 되면서 등장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는 성인사회의 청소년 이해와 청소년들의 자기이해가 대립하게 될 소지가 커질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자율적 시민으로 대접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고, 성인들은 이를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어 ‘문제’ 청소년으로 자라났다고 보게 될 것이다. 성인들은 ‘문제’의 원흉들을 걸러내어 격리시키고, ‘교육’적 조치들을 강화시킬 것이다. 성인사회의 ‘압제’는 청소년들의 자기주장을 격화시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돌은 자명한 결과일 것이다.

이상의 두 시나리오는 이미 동시적으로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비자율적 청소년상을 체화한 청소년들은 ‘일류대학’ 입학 을 위해 타율적인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한 모든 준비를(기꺼이 ‘구타’당할 준비마저) 다하고 있다. 문제 청소년상을 내재한 청소년들은 기꺼이 “몬스터청소년”(최상진 외, 2003)이 되어주고 있다. 또 이를 위한 정당화 기제, 이른바 문제의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으로 돌려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기제를 활용하고 있다.²⁰⁾ 이 정당화 기제는 전형적인 타율적 시민의 모습이다. 자율적 청소년상을 가진 친구들은 촘촘한 통제를 거부하며(두발, 복장 등), 종교적 자유를 위해 싸우며, 또한 폭행당하지 않을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성인사회의 강건한 저항에 절망하면서, 과거 ‘68 청년들의 구호를 외치게 될지도 모른다. “30세 넘는 늙은이들과는 말도 섞지 마라.” 하지만 이들은 ‘현실의 냉엄함’ 속에서 곧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청소년기의 ‘경력의 사다리’를 적절한 때에 타고 오르지 못해, 낙오자

20) ‘청소년 심리’가 원래 불안정하여, 갑자기 ‘호르몬 분비’가 과다해져서, 청소년이라 ‘몰라서’, 혹은 ‘사회의 희생양’이라는 항변을 통해 책임을 모면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가 될 수도 있다.

불행하게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청소년 연구자가 당사자들을(일반 성인, 교사, 정책결정자, 그리고 청소년 자신 등) 대신하여 어떤 규범적인 청소년상을 선택해줄 의무는 없다. 선택은 오로지 당사자의 몫이다. 다만 연구자들은 청소년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면 안 되며, 오히려 그것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성찰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신의 기초개념들이 생성된 역사적, 사회적인 맥락을 무시하는 청소년사회학은 사회가 제시한, 자명하고, 더 이상 캐물을 수 없는 명확성에 붙잡힐 위험에 빠지게 된다. 성찰적인 사회학은 지배적인 문화와 일상의식의 규범과 개념들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바로 그 규범과 개념들을 사회적 실재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계기로 분석해야 한다. [...]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세계는, [부르디외가 밝힌 바와 같이] 사회의 의미를 둘러싼 투쟁이 부단히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Scherr, 2003: 52; []은 인용자, 인용문내 인용과 주는 생략)

오늘날 지배적인 대다수 청소년상은 오래전부터 전승되어온 것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청소년상이 생성된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그것을 ‘사회가 제시한, 자명하고, 더 이상 캐물을 수 없는 명확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런 주저 없이 이전 세상에서 구성된 청소년상에 맞추어 현재 청소년들을 재단하거나, 이들에게 헛된 희망을 투사하여 우리가 믿는 바를 실현하고자 도 구화시키고 있다. 결국 우리 성인 청소년연구자의 사명과 과제는, 쉐어(Scherr, 2003)가 말한 바와 같이, 청소년상이 재구성하는 현실과 실제 현실과의 차이와 관계를 드러내고 이를 연구하는 데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제기는 성찰적 청소년 연구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참 고 문 헌

- 김선남(2005). 한국신문의 청소년 관련 기사 분석. 한국출판학연구, 제48권 제6호, pp. 109-131.
- 김영래(2002). 막스 셸러의 본보기 이론의 교육학적 의미. 칸트의 본보기 이론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안암교육학연구, 제8권 제1호, pp. 37-70.
- 미래트랜드연구팀. 2005. 한국 성장세대 연구. 전형으로 풀어본 19·25세대. 서울: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 서덕희(2003). '교실붕괴' 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제6호 제2호, pp. 55-89.
- 전상진(2003). '교육적 세대'의 개념적 적용: 최근 세대현상의 이해를 위한 시도. 한국교육, 제30호 제2호, pp. 71-90.
- 전상진(2004). 학교위기에 대한 세대이론적 접근. 교육학적 모라토리움의 세대이론적인 재구성. 교육사회학연구 제14호 제2호, pp.195-218.
- 정유성(1998). "청소년문화 담론 형성을 위한 시론."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pp. 31-48.
- 조영승(2003).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역사적 변천." 청소년문화포럼, pp. 15-28.
- 최원기(2005). "청소년 시민권에 대한 일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6호 제1호, pp. 5-24.
- 최상진·김양하·황인숙(2004). 한국문화에서 청소년이란 무엇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0호(특집호), pp. 11-28.
- 한준상(1999). 청소년학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Abels, H.(2000). Die "Jugend" der Soziologie. In U. Sander & R. Vollbrecht(Eds.), *Jugend im 20. Jahrhundert. Sichtweisen, Orientierungen, Risiken*(pp.75-1000). Neuwied: Luchterhand.
- Alefeld, Y.(1996). *Göttliche Kinder. Die Kindheitsideologie in der Romantik*, Paderborn: Schönigh.
- Ariès, P.(2003). 아동의 탄생. 문지영 옮김. 서울: 새물결.
- Baumann, Z.(1996). *Moderne und Ambivalenz. Das Ende der Eindeutigkeit*. Frankfurt a.M.: Fischer Taschenbuch Verlag.

- Berger, P. & Luckmann, T.(1974). *Die gesellschaftliche Konstruktion der Wirklichkeit*, Frankfurt a.M.: Suhrkamp.
- Boehme, J.(2000). *Schulmythen und ihre imaginaere Verbuergung durch oppositionelle Schueler*. Bad Heibrunn: Klinkhardt.
- Bohnsack, R.(2003). Bildinterpretation. In R. Bohnsack, M. Meuser & W. Marotzki(Eds.), *Hauptbegriffe Qualitativer Sozialforschung*(pp. 18-21). Opladen: Leske und Budrich.
- Bolz, N.(1995). *Am Ende der Gutenberg-Galaxis. Die neuen Kommunikationsverhaeltnisse*.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 Bourdieu, P.(1987) *Die feinen Unterschiede*. Frankfurt a.M.: Suhrkamp.
- Cohen, P. & P. Ainley(2000). In the country of the blind?: youth studies and cultural studies in Britai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3. No.1*, pp. 79-96.
- Dudek, P.(2002). Geschichte der Jugend. In H.-H. Krüger & C. Grunert(Eds.), *Handbuch Kindheits- und Jugendforschung*(pp. 333-349). Opladen: Leske+ Budrich.
- Griese, H.(2000). Jugend(Sub)Kultur(en): Facetten, Probleme und Diskurse. In R. Roth & D. Rucht(Eds.). *Jugendkulturen, Politik und Protest. Vom Widerstand zum Kommerz*(pp. 37-47). Opladen: Leske + Budrich.
- Hafeneger, B.(1995). *Jugendbilder. Zwischen Hoffnung, Kontrolle, Erziehung und Dialog*, Opladen: Leske + Budrich
- Hasse, R. & Kruecken, G.(1999). *Neo-Institutionalismus*. Bielefeld; transcript Verl.
- Heiddeger, M.(1985). *세계상의 시대*. 최상욱 옮김. 서광사.
- Hengst, H.(1996). Kinder an die Macht! Der Rückzug des Marktes aus dem Erziehungsprojekt der Moderne. In Zeiher, H., Büchner, P. & Zinnecker, J.(Eds.). *Kinder als Außenseiter? Umbrüche in der gesellschaftlichen Wahrnehmung von Kindern und Kindheit*(pp. 117-133). Weinheim et al.: Juventa.
- Hoehne, T.(2000). *Pädagogik der Wissensgesellschaft*. Bielefeld: transcript Verl.
- Hollenstein, Erich(2006). *Jugend historische Anmerkungen und Moderne Ansichten zu*

- einer selbstverstaendlichen Lebenspahse. efh-papers P05-005.* Evangelische Fachhochschule Hannover.
- Hornstein, W.(1994). Das schutzbedeurftige Kind. In Deutsches Jugendinstitut(Ed.), *Handbuch Medienerziehung im Kindergarten, Teil 1: Pädagogische Grundlagen*(pp. 573-586). Opladen: Leske + Budrich.
- Kettler, D. & Meja, V.(2001). Karl Mannheim and the sociology of knowledge. In G. Ritzer & B. Smart(Eds.), *Handbook of social theory*(pp. 100-111). Sage; London et al.,
- Lange, A.(1995). *Kindheitsrhetorik und die Befunde der empirischen Forschung.* Universität Konstanz: Forschungsschwerpunkt "Gesellschaft und Familie", Arbeitspapier Nr. 19.
- Lenzen, D.(1994). Das Kind. In D. Lenzen(Ed.), *Erziehungswissenschaft. Ein Grundkurs*(pp. 341-361). Reinbek: Rowohlt.
- Lüscher, K.(2001). Kinderpolitik. Der Perspektive der Kinder gerecht werden." In F.-M. Konrad(Ed.), *Kindheit und Familie. Beiträge aus interdisziplinärer und kulturvergleichender Sicht.*(Ludwig Liegle zum 60. Geburtstag)(pp. 85-109), Münster: Waxmann.
- MacDonald, R., Mason, P., Shildrick, T., Webster, C., Johnston, L. & Ridley, L(2001). Snakes & ladders: in defence of studies of youth transition.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Vol. 5, No.4.* <http://www.socresonline.org.uk/5/4/macdonald.html>. (2004.2.10).
- Mitchell, W.J.T.(1994). *Picture Theory. Essays on Verbal and Visual Represent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tterauer, M.(1992). *A History of Youth: Family, Sexuality and Social Relations in Past Time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Peez, Georg(1992). "Vorbilder in der Kunstpädagogik, Nachdenken über die Vorbildlichkeit von Beuys und darüber hinaus." *Kunst + Unterricht, Zeitschrift für Kunstpädagogik, Heft 166, Oktober,* pp. 12-13.
- Richter, D.(1987). *Das fremde Kind. Zur Entstehung der Kindheitsbilder des*

- bürgerlichen Zeitalters*, Frankfurt a.M.: Fisher.
- Roth, L.(1983). *Die Erfindung des Jugendlichen*. München: Juventa.
- Scherr, A.(2003). Konturen einer genuin soziologischen Jugendforschung. In J. Mansel, H.M. Griesse & A. Scherr(Eds.) *Theoriedefizite der Jugendforschung. Standortbestimmung und Perspektiven*(pp. 49-66). Weinheim: Juventa,
- Swidler, A. & Arditii, J.(1994). The new sociology of knowledge.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0, pp. 305-329.
- Stehr, N(2001). Modern societies as knowledge societies. In G. Ritzer & B. Smart(Eds.), *Handbook of social theory*(pp. 494-508). London et al.: Sage.
- Trota, T.v.(1982). Zur Entstehung von Jugend.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Vol. 34 No.2, pp. 254-277.
- Wintersberger, H.(1998), Ökonomie der Kindheit. In R. Kränzl-Nagl, B. Riepl & H. Wintersberger(Eds.) *Kindheit in Gesellschaft und Politik*(pp. 77-103). Frankfurt a.M.: Campus.
- _____ (2000). Kinder als ProduzentInnen und als KonsumentInnen. In H. Hengst & H. Zeiher(Eds.), *Die Arbeit der Kinder. Kindheitskonzept und Arbeitsteilung zwischen den Generationen*,(pp. 169-188). Weinheim: Juventa.

ABSTRACT

Youth Studies and Adolescence Image

Chun, Sang-Chiin *

This work begins with a premise that the period of adolescence is not a constant social fact to be given but a social construction to be formed by cultural social conditions. In order to analyse the process of forming a social construction properly,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social history of growth and the history of its discourse together. This work focuses its efforts on the sectional stage of the whole process, that is, on the point that how and to what extent a discourse on growth affects a social construction at the period of adolescence. Recognizing the fact that a discourse on growth and the period of adolescence are related to each other in various ways, this work presents the concept of the image of adolescents as a significant link between them. The image of adolescents is a definition about the role and status of adolescents. A social construction at the period of adolescence, that is, the life of adolescents is influenced decisively by the way in which their image is defined. Obviously, the image of adolescents does not appear in a single form. The image of educational adolescents, which is the original form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has differentiated into various forms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al process. Furthermore, the initiative image at the adolescence period is variable according to each social domain. Admittedly, researchers who study adolescents can not free themselves completely from the dominant image of adolescents in each social domain. Reflexive study on

* Sogang University

adolescents should pay attention to this point. Without considering the image of adolescents, without examining the historical social context in which basic concepts of thinking framework for adolescents are produced, researchers will play a role to grant the scientific justification for the dominant norms and knowledge in society.

Key Words : image of adolescents, social construction, reflexive study on adolescents

투고일 : 10월 23일, **심사일** : 12월 11일, **심사완료일** : 12월 18일